

미네르바의 향연: 춤 팀 소감

16학번 함지호

안녕하십니까? 철학과 16학번 함지호입니다. 저는 철학과 축제인 '미네르바'에서 춤 팀 이었고, 그에 대한 저의 소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춤을 추며 고생한 멤버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저희 춤 팀 대표인 동현이형 그 밑에 창현이형, 승환이, 민혁이, 우진이, 그리고 저 까지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그리고 여자 춤 팀인 소현누나, 정은누나, 민지누나, 지원이 이렇게 총 4명입니다. 또 한 우리 팀을 많이 도와주신 성언이형도 있습니다. 저희 팀이 선정한 춤곡은 태양의 '링가링가'이고 여성 팀이 정한 춤곡은 카라의 '맘마미야'입니다. 저희는 이곡을 최대한 따라가기 위해 2달간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춤 팀은 대체적으로 의욕과 열정이 넘쳤던 거 같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춤 연습을 하고 모르는 부분은 서로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부자연스럽거나 미숙한 부분도 조언을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연습이 좀 부족한 부분은 집에서 연습을 하며 그 다음날 까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동작이 틀리지 않게 해온 것이 너무 나도 좋았습니다. 춤이 너무 힘들 때는 의욕을 잃지 않으려고 여러 춤 영상을 보며 따라해 보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연습 때 마다 즐거웠습니다. 춤이 단조로워 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선을 짤 때도 여러 영상을 보며 생각해보기도 하고 한 사람이 의견을 내면 존중하여 그 의견대로 연습해 보기도 하며

■ 춤: 남성 팀 소감

각자 춤 연습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며 의견 화합이 잘되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춤만 추면 무대가 지루해 질수도 있으니 자신의 재능도 선뜻 선보인 친구들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공연 당일 긴장이 많이 되었지만 자신의 연습한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어떤 때 보다 집중을 해준 팀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춤 팀을 위해 '사이키'조명을 빌려준 저희 과에게도 감사하고 조명을 도와준 경녕이형과 상혁이형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졸업할 때 까지 앞으로 몇 년 이 남았는데 매년 춤 팀뿐만 아니라 과 축제를 위해 연습하는 연극과 필드도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 미네르바 준비한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